

## 복잡한 지하상가, 실내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는다

- 지하상가, 지하철 역사 등에 주소를 부여하여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
- 가로등·전주 등 도로시설물, 항·포구 및 강 안의 시설까지 주소부여
- 생필품 드론 배송 등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정보 서비스 모델 발굴

### < 「실내내비게이션」 적용 사례 >

- ㄱ 씨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자주 이용하지만 방문 할 때 마다 길을 헤맨다. 앞으로는 실내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는 보행길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.

- 복잡한 지하상가,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길찾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.
  -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신산업 모델 개발을 선도할 지자체 25곳을 선정하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정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.
    -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지자체는 2월(2.1.~2.17.)에 시행된 2023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'를 통해 선정됐다.
    - 공모에는 85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, 산업계, 학계, 연구기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우수성, 실현가능성, 창의성,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.
- \* 1차 서면심사 2.22., 2차 자문컨설팅 3.28.~3.29
- 이번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행되는 주소정책 선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과 지자체에서 시범운영되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.
    - 국비지원 사업에는 20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17개 지자체에서 ▲주소기반 드론 배송, ▲주소기반 로봇 배송, ▲자율주행차 주차 인프라 구축, ▲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, ▲주소정보시설 테스트베드 등이 시행된다.

-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12억 원 규모로 8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며  
 ▲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, ▲항포구, 강 내 시설 주소부여, ▲사물인터넷 기기에 주소적용 및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, ▲도로시설물에 주소정보 적용, ▲지하시설물에 주소정보 적용, ▲시간개념\*(한시운영) 사물주소 시범구축 등이다.

\* 거리공연장, 야외장터, 푸드트럭, 배달존 등 일정기간, 일정시간에만 운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물에 부여하는 주소
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주소정보 기반 산업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진행해왔다.

- 특히,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도로명 확대, 주소기반 드론 배송 등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,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.

<'22년 시범사업 주요 성과>

주소체계 고도화	① 비닐하우스·농로 등 농촌지역, 해수욕장·항만 등 어촌지역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(경남 의령, 거제) → 주소사각지대 위치정보 제공, 농작물 직거래 및 택배 시 위치 안내 ② 대규모 판매시설(농수산물 도매시장) 주소 세분화(인천 남동구) → 소상공인 사업장 1주소 부여를 통한 점포별 위치 안내 및 택배 배송 가능 ③ 출입구 정보 확충 기준 마련(경기도) → 건물 주출입구 외 보조출입구(고령자, 휠체어, 유모차 등 이용) 구축 및 가까운 출입구 길 안내를 위한 기준 마련
주소기반 신산업 모델 개발	① 주소기반 드론(가평, 영월), 자율주행 로봇 배송(부산, 세종, 울산, 송파), 자율주행차 주차(세종) 실증 →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활용하여 편의점 ↔ 펜션 간 물품 배송 등 주소기반 산업모델 개발·보급을 통한 상용화 기반 마련 ②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(대전 유성) → 백화점 실내 공간에서 주소, 매장 이름 등으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실내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증

-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“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소정보를 확충해 주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신산업 서비스를 적극 개발·보급해 나갈 예정”이라며, “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소정책과	책임자	과 장 송정아 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 이인아 (044-205-3562)



## 참고1

## 국비·특별교부세 시범사업 주요 내용

구분	사업명(지자체)	주요 내용
국비 (전국 확산)	주소기반 드론 배송 (충남 보령, 경북 안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(추진배경) 사람과 시스템 간 배송지점 위치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설치를 통해 원하는 시간·장소까지 배송 가능한 물류 서비스</li> <li>◇ (사업내용) 도서·산간 지역 드론 배송 인프라 (배달점·거점 60점) 설치 및 시험운항, 우편물·식료품 배송 등 상용화</li> </ul>
	주소기반 로봇 배송 (서울 광진, 경기 성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(추진배경)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이동경로와 촘촘한 점점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도로에서 문앞까지 라스트마일 서비스 제공</li> <li>◇ (사업내용)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이동경로 구축 및 식음료 배송, 순찰·청소 등 상용화 위한 모델 발굴</li> </ul>
	자율주행차 주차 인프라 구축 (충북도, 전남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(추진배경) 자율주행차 주차 시 활용하기 위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모델 발굴</li> <li>◇ (사업내용) 실내외 주차장에 대한 사물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</li> </ul>
	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(서울 강서, 인천 서구, 경기(구리, 안성), 충남(금산, 예산), 전남 순천, 경북(구미, 김천, 영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(추진배경) 사용자 영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대규모판매시설 주소세분화 추진</li> <li>◇ (사업내용) 농수산물 도매시장, 전통시장 등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체계 세분화, 신규 도로명 부여 및 개별 건물과 점포별 상세주소 부여</li> </ul>
	주소정보시설 테스트베드 (경기 안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(추진배경) 주소정보시설의 기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 고도화를 통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소 안내 체계 마련</li> <li>◇ (사업내용) 시인성·내구성 개선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 주소정보 시설 설치·운영</li> </ul>
특별 교부세 (시범 사업)	시간개념 사물주소 시범 구축 (충남 보령, 대구 중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(추진배경)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의 위치표시 서비스 부재에 따라 사물이나 장소에 위치를 주소정보로 안내 필요</li> <li>◇ (주요내용) ①해수욕장 배달존, 시장 푸드트럭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 DB구축 및 주소부여, 안내시설 설치 ②시간개념 사물주소 갱신방안 및 활용 모델 제시</li> </ul>

<p><b>항·포구, 강 내 시설 주소부여</b> (경남도)</p>	<p>◇ <b>(추진배경)</b> 항·포구 강 내 시설물에 주소정보를 부여하여 주소 사각지대 해소 및 해양주소 인프라 확보</p> <p>◇ <b>(주요내용)</b> ①가두리양식장, 낚시터, 요트정박장 등 해안·강안 지역 및 시설물 등에 주소정보 적용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</p> <p>②항·포구, 강 내 시설물에 대한 관련 공적장부 주소정보 적용 등 해양주소 활용 모델 제시</p>
<p><b>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</b> (대전시, 서울 서초)</p>	<p>◇ <b>(추진배경)</b> 전국 확산을 위해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용 인프라 구축 고도화(인프라 구축 시간·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) 필요</p> <p>◇ <b>(주요내용)</b> ①입체복합시설(대전역,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) 대상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용 DB 구축, ②DB 구축 자동화 도구 개발, ③DB 갱신·관리체계 마련, ④실내내비게이션 실증</p>
<p><b>사물인터넷 기기에 주소적용 및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</b> (서울 송파)</p>	<p>◇ <b>(추진배경)</b>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시스템이 개발·운영되고 있으나 활용 분야별 위치식별 체계가 상이하여 정보 공동활용 어려움</p> <p>◇ <b>(주요내용)</b> ①사물인터넷 기기 설치 현황 분석, ②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적용 및 갱신 방안 제시, ③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통한 활용 모델(보행약자 지원 등) 제시</p>
<p><b>도로시설물에 주소정보 적용</b> (서울시)</p>	<p>◇ <b>(추진배경)</b> 도로 인근에 위치한 시설물 간의 통일된 안내 체계 부재</p> <p>◇ <b>(주요내용)</b> ①가로등, 도로표지판, 신호등 등 도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에 주소정보(기초번호, 사물주소) 적용, ②도로대장 등 관련정보 연계·활용 방안 제시</p>
<p><b>지하시설물에 주소정보 적용</b> (강원 정선)</p>	<p>◇ <b>(추진배경)</b>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는 전국적으로 구축 확산 중이나 시설물의 위치가 좌표로만 관리되어 직관적 인지나 공유 불가능</p> <p>◇ <b>(주요내용)</b> ①상·하수도, 배전함 등 지하시설물에 주소정보(기초번호, 사물주소) 적용 방안 마련, ②시범DB 구축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, ③지하시설물 관련 사고시 주소정보 활용(신고·출동 등) 실증</p>

## 참고2

## 주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하는 국민의 삶[예시]

□ 사물주소, 공터에 기초번호 부여 → **촘촘한 주소체계 구축**

구분	현재는	앞으로는
<b>F(60세)</b> <b>등산 중</b> <b>의식을 잃은</b> <b>응급상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응급 신고 시 위치 설명 어려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숲길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, 국가지점번호</b>로 위치 설명 가능</li> <li>• 주소정보시설(기초번호판 등)의 QR코드를 이용한 신속한 응급 신고 가능</li> </ul>
<b>G(35세)</b> <b>응급구조</b> <b>소방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울역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심정지 당한 환자 발생 신고 접수</li> <li>- 1호선, 4호선, 공항철도 등 역사가 복잡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하철역 <b>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, 소화전 등에 도로명주소 또는 사물주소를 부여해</b> 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</li> <li>• 주소정보 데이터를 <b>경찰,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과 실시간 공유</b> 중</li> </ul>
<b>H(28세)</b> <b>급히 전기차</b> <b>충전이</b> <b>필요한 상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기차 충전소까지의 정확한 위치가 없어 불편</li> <li>• 전기차 충전소의 잔여 충전시간 등의 정보 공유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차장, 전기차 충전기에 <b>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물주소 부여</b>로 전기차 충전기 주차구역 위치 확인</li> <li>• 전기차 충전 잔여 시간정보 공유, 충전이 빠른 주차구역으로의 안내 가능</li> </ul>
<b>I(42세)</b> <b>비닐하우스</b> <b>농가, 점심</b> <b>배달 필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재 농경지 내 비닐하우스는 주소가 없어 배달 곤란</li> <li>- 식당에 위치 설명하느라 애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로 주소 부여 등을 통해 <b>농로 옆 비닐하우스 주소 부여</b></li> <li>- <b>내비게이션 회사,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에 실시간 주소정보(지도 등) 공개,</b> 쉽게 위치를 검색해 배달 가능</li> </ul>
<b>J(25세)</b> <b>명절을 맞아</b> <b>할아버지께</b> <b>성묘 희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재 조성된 묘지는 토지 소유의 개념으로 대체로 지번을 사용, 산속의 묘지 지번은 자세한 위치표시 및 안내에 한계</li> <li>- 예) 세종시 금남면 산100번지 소재, 가족들은 원수산 남쪽 등성이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것으로 공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물이 없는 <b>공터에 공간주소 부여</b></li> <li>① 깊은 산속에 묘지가 있는 경우 전국을 <b>10m×10m</b> <b>나는 국가지점번호 격자</b>를 이용해 묘지 주소부여</li> <li>② 숲길·등산로 가까운 묘지 주소</li> </ul>

## □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

구분	현재는	앞으로는
<b>A(22세)</b> <b>외딴 섬마을</b> <b>할머니께 생신</b> <b>선물 발송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배송업체에서 선착장까지만 배달, 선착장에서 섬에 들어가는 배에 선물을 실어 섬까지 배송</li> <li>섬에 들어가는 배가 없는 날은 배송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착장에서 <b>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드론배달점</b>으로 드론을 이용해 선물 배달</li> <li>실제 '21년 제주도 마라도에 공적마스크 드론 배송 실증</li> </ul>
<b>B(22세)</b> <b>캠핑 애호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캠핑장에 현장배달 인프라가 미흡해 배달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배달료 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캠핑장에 설치된 드론배달점</b>으로 음식, 편의점 물품 등을 배달</li> </ul>
<b>C(35세)</b> <b>아파트 내</b> <b>택배 배송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파트 정문에서 손수레에 택배 물품을 실어 각 동·층·호로 배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무인 택배함으로 물품 배달</li> <li><b>자율주행로봇이 무인택배함에서 문 앞까지 라스트마일 서비스</b> 제공</li> </ul>
<b>D(46세)</b> <b>전동 휠체어로</b> <b>이동하는 상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콜택시 배차를 기다려 목적지까지 이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주소기반 MaaS(Mobility as a Service)</b>를 통해 <b>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지하철역</b>으로 이동, 지하철·공유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</li> </ul>
<b>E(36세)</b> <b>서울</b> <b>고속버스터미널</b> <b>에서 여자친구</b> <b>꽃 선물 위해</b> <b>꽃집 검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가 너무 복잡해 꽃집을 찾는데 많은 시간 낭비</li> <li>※ 대기업도 지하상가 내 실내내비게이션 서비스 추진 준비하다 중단</li> <li>- 디지털트윈 방식의 실내정밀지도 구축에 초기 DB구축 비용 과다 발생과 수시갱신체계 확보에 문제 발생</li> <li>※ 신규·소규모 위치안내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휴대폰에서 고속버스터미널 꽃집 검색, <b>실내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꽃집까지 보행길 안내</b>받아 꽃 구입</li> <li>※ ('20.~'21.) 송파구 잠실역사와 연계된 <b>지하상가</b>, ('22.) 대전 신세계<b>백화점</b>(4~5층) 내 <b>실내 이동경로와 상가, 시설물에 주소부여</b> 및 <b>실내내비게이션 실증</b></li> <li>-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(인프라 공유) 및 민·관 기술협력 추진</li> <li>- ('23.) <b>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용 인프라 구축 고도화</b> (실내측위 정보 구축 자동화 도구 개발 등 <b>인프라 구축</b>에 소용되는 <b>시간·비용 최소화</b> 방안 마련)</li> <li>- ('24.~) <b>전국 확산</b></li> </ul>